



보도시점

2026. 4. 16.(목) 11:00  
4. 17.(금) 조간

배포

2026. 4. 16.(목) 09:00

#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확인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서비스 개시

- 부검 소견부터 상세 검사 결과까지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3월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4월 1일부터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닭, 오리, 앵무새 등 조류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검 소견과 세부 검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검사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글 시트 기반의 앱시트(AppSheet), 구글 앱스 스크립트(GAS)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류질병 검사 의뢰는 검역본부에 사전 연락 후 작성한 의뢰서와 폐사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가능하다. 이후 의뢰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접수 번호 및 시스템 접속 링크를 포함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모바일에서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민원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검사 단계(접수, 검사 중, 통보 등) ▲부검 소견 ▲바이러스·세균·기생충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등이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가금농가나 임상수의사 등이 대장균증,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조류질병 검사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 증상 확인, 진단키트 활용 등 신속한 현장 대응과 초동 조치가 우선되는 질병 특성상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공표

또한, 검사 담당자 간 조류질병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수기 기록과 중복 입력을 줄여 오차를 줄이고 민원 대응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진형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개선한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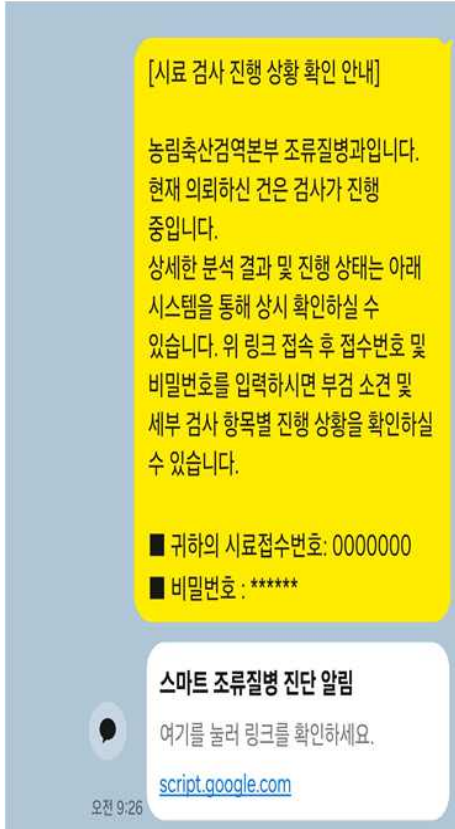
붙임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시스템 관련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책임자	과 장	허 문 (054-912-0813)
		담당자	연구관	김혜령 (054-912-0814)

# 붙임

#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시스템 관련 사진

## (접속) 안내 메시지의 링크 클릭



## (조회·확인) 접수번호 입력 후 세부 검사 결과 확인



## 안내 메시지 화면(좌), 시스템 조회 화면(우)